

제1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얼마 전 졸업생 초청 강연에서 선배님이 마지막 인사 멘트로 ‘올로~!’라고 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처럼 올로라는 말이 요새 많이 쓰이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서, 오늘은 올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2011년 래퍼 드레이크(Drake)가 발표한 <더 모토(The Motto)>의 노래 가사에서 ‘You Only Live Once’와 ‘YOLO’가 등장했는데,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올로’ 역시 유행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올로는 한 번 뿐인 인생이니 미래를 위해 살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자는 것으로, 현대인들에게 주목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올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올로족’이라고 하는데요. 올로족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현재 지향적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죠. 미래의 안락한 삶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뒤로 한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에 주력했다면, 올로족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 생활에 주력하죠. 예를 들어 전세금을 빼서 세계 일주를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고가의 전자 제품을 사는 것 등이 올로족의 소비 경향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태도의 변화가 올로 라이프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런 올로 라이프는 단순하고 간결한 생활을 통해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생활 방식인 ‘미니멀 라이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올로 라이프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료를 함께 보시죠. (자료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취업 포털 ○○○에서 20~30대 남녀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7.1%가 올로 라이프의 확산 원인으로 경제 불황을 선택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의미 있게 즐기겠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로족은 불안한 경제, 사회 속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 물질에 대한 소유보다,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이 더 값지다고 생각한 것이죠. 현재의 나를 위로하는, 그래서 더 바람직한 나로 재정비할 수 있는 생활, 오늘을 충실히 살다 보면 내일도 충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올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올로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부드러운 어조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하게 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올로의 개념과 올로 라이프의 확산 원인을 설명하며 올로 라이프를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② 올로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올로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올로 라이프가 유행하게 된 사회적 요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올로 라이프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 ④ 올로족의 소비 성향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며 바람직한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올로 라이프를 생활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과 올로족의 삶의 방식 간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학생들에게 기성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②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야겠어.
- ③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청중들의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를 시작해야겠어.
- ④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야겠어.
- ⑤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야겠어.

3.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청자1: 그동안 ‘올로’라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라 궁금했었는데, 이 발표를 통해 올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돼서 유익했어. 그런데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전세금까지 빼서 세계 일주를 떠나는 올로족의 행동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청자2: 나는 ‘미니멀 라이프’가 올로 라이프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게 참 흥미로웠어. 올로 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청자3: 작년에 유행했던 ‘휘게 라이프’도 결국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건데, 올로 라이프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구나. 나는 앞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겠어.

- ① ‘청자1’은 발표 내용의 일부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② ‘청자2’는 발표를 듣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군.
- ③ ‘청자3’은 발표 내용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군.
- ④ ‘청자1’과 ‘청자2’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발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자1’과 ‘청자3’은 발표 내용을 듣고 자신의 행동 변화를 다짐하고 있군.

[4~7] (가)는 기사 요청서를 받고 학생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기사 요청서]

‘도시숲의 가치와 도시숲 보존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교지에 실을 기획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숲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본교 선배님인 ○○○ 박사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셔서 자세히 여쭙어 보고자 찾아뵈었습니다.

박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몇 가지 질문을 적어 왔는데요, 먼저, 도시숲이라는 말이 학생들에게는 약간 낯선 용어인데, 도시숲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네. 읍 이상의 도시 내 자투리땅이나 유휴지 등에 조성된 공원 녹지, 우거진 숲 등의 녹색 공간을 통틀어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요즘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사: 삭막한 도시 속에서 숲이 쾌적한 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학생: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박사: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도시숲의 기능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죠.

학생: ㉠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숲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네.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은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이 과정에서 나무가 미세먼지도 함께 흡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죠.

학생: 그러니까 도시숲이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숲의 현황은 어떤가요?

박사: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평균 8.32㎡로 세계 보건 기구의 권고 기준인 9.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숲의 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다행히 도시숲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도시숲은 조성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박사: 맞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면 도시숲 조성 효과가 감소할 수 있죠. 그런데 도시숲 관리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생: ㉡ 시민들이 도시숲 관리에 협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 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도시숲 관리 봉사단에 참여하여 도시숲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심 속 허파인 ‘도시숲’이 국민 건강 지킴이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 생활권 내의 숲, 공원 녹지 등 다양한 유형의 녹색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숲은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누리며 스트레스를 유지하게 해 준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공기 청정기’로 도시숲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다.

국립 산림 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는 광합성을 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도 함께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잎사귀가 많고 사시사철 붙어 있는 침엽수는 그루당 1년에 44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또한 나무들이 집중 조성된 도시숲은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 미세먼지를 빨리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숲을 15분간만 바라봐도 콩팥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가 15.5% 줄고 혈압은 2.1%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시숲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보건 기구가 권고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9.9㎡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8.32㎡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4.4㎡로, 런던(27㎡)의 6분의 1, 뉴욕(23㎡)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도시숲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잇따라 도시숲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숲은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는 국비로 지원되지 않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도시숲 분야의 전문가인 ○○○ 박사는 “도시숲 관리 봉사단 참여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시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기 질의 악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 공간의 역할과 공기 정화의 기능을 지닌 도시숲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숲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4. (가)의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인터뷰 대상자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인터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학생’은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 ③ ‘박사’는 질문자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며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④ ‘박사’는 질문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하여 답변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박사’는 질문과 관련한 구체적 예를 제시하여 질문자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5. <기사 요청서>를 참고할 때, (가)의 ㉠,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성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②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③ 작문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의 어휘 수준의 조정을 요청한다.
- ⑤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6.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다른 편집부원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편집부원: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작성할 계획이야?  
 학생: 박사님이 ㉠

- ①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도시숲의 긍정적 기능을 부각할 생각이야.
- ② 우리나라의 도시숲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도시와 비교하여 이를 좀 더 강조할 생각이야.
- ③ 도시숲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생각이야.
- ④ 도시숲이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인용해서 신빙성을 높일 생각이야.
- 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도 함께 들이마신다고 하셨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서 이를 뒷받침할 생각이야.

7. 다음은 (나)에 대한 교지 편집부장의 검토 의견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한 점	• 중심 화제와 다른 대상을 비교하여 중심 화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함. .... ① • 마지막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하고 중심 화제와 관련한 전망을 서술함. .... ②
수정할 점	• 1문단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 있음. .... ③ • 2문단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음. .... ④ • 3문단에서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 있음. .... 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학교 학생들
- 주제: 가짜 뉴스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 촉구
- 글의 구성
  - 1문단: SNS를 통해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해야겠어.
  - 2문단: 가짜 뉴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3문단: 가짜 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살펴봐야겠어.
  - 4문단: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가짜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뉴스 소비의 시공간적 제약성을 감소시켜 뉴스를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SNS를 통해 뉴스를 더욱 쉽게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SNS에 의한 뉴스 이용률이 종이 신문에 의한 뉴스 이용률을 앞서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SNS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 협회 산하 연구 기관인 아메리칸 프레스 인스티튜트(API)가 최근에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언론이 처한 가장 큰 위기로 ‘가짜 뉴스’를 든 것만 보아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짜 뉴스란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유포된 가짜 정보로,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 황 교수는 범람하는 뉴스 중에 어떤 뉴스에 주목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뉴스 이용자의 특성상, 뚜렷하게 드러나고 두드러지게 다른 기사와 달라 보이는 기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짜 뉴스 생산자는 이용자에게 선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그들을 치밀하게 속이기 때문에 많은 뉴스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짜 뉴스 생산자는 과정이야 어떻든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낸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고통은 엄청나다. 또한 가짜 뉴스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해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이처럼 가짜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가짜 뉴스의 제작자 또는 대량 유포자에 대해 법적 제재와 처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가 활발히 생산되고 유통되는 각종 SNS에서는 자체적으로 신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짜 뉴스를 걸러 내거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는 국민의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었음을 들어 초등학교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 형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렸을 적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으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가짜 뉴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짜 뉴스 생산자는 가짜 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포장한 채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속이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막심하다.

㉔

8.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㉑~㉔가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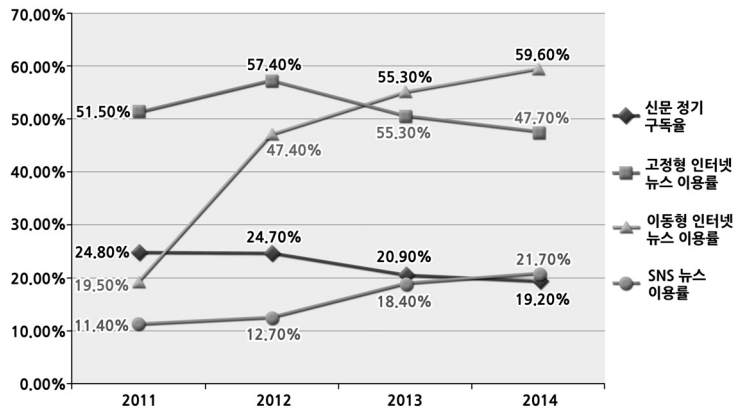
- ㉑ 가짜 뉴스로 인해 사실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㉒ 최근 각종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뉴스 정보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㉓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SNS의 영향력을 악용하는 현상이 심각함을 제시해야겠어.
- ㉔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뉴스를 이전보다 쉽게 접하게 되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① ㉑ - ㉓ - ㉒ - ㉔
- ② ㉒ - ㉓ - ㉑ - ㉔
- ③ ㉒ - ㉔ - ㉓ - ㉑
- ④ ㉓ - ㉒ - ㉔ - ㉑
- ⑤ ㉓ - ㉔ - ㉒ - ㉑

9.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통계 자료>



(나) <보도 자료>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통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선전이 특정 후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명한 선거를 위해 사이버상의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 <연구 자료>

하버드 대학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가짜 뉴스와 같은 인터넷 루머 확산의 원인으로 집단 극단화 현상을 지적했다. 집단 극단화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 교류를 통해 더욱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선입견에 확신을 더해 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려는 경향인 '확증 편향' 심리가 큰 역할을 한다. 집단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 통합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선스타인 교수는 강조하였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첫째 문단에서 언급한 SNS에 의한 뉴스 이용률이 종이 신문에 의한 뉴스 이용률을 앞서게 되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셋째 문단에서 언급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둘째 문단에서 언급한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임을 부각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짜 뉴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부각한다.

10. ㉑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㉒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짜 뉴스가 SNS에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뉴스를 접해야 할 것이다.
- ② 가짜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병이다. 전염병이 계속 퍼지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반목과 불신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 ③ 폭포수가 폭포에서 계속 쏟아지듯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가짜 뉴스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정보를 접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 ④ 가짜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짜 뉴스의 무분별한 인터넷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비판적 인식을 길러야 할 것이다.
- ⑤ 긴 꼬리를 물고 기다리는 택시처럼 가짜 뉴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짜 뉴스는 수용자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와 관련된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부른다.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의미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㉑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 성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의미 성분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 'A'와 'B'가 결합하여 'AB'라는 단어가 된 경우, 이 단어는 'A와 B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아들딸'은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두 단어가 지닌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 이때 합해진 두 단어 중 어느 한쪽을 중심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두 단어의 의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하면서도 거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물불'은 '물과 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기본 뜻이지만, '어려움이나 위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때 후자의 뜻은 원래의 의미에서 확장된 융합 의미라 할 수 있다. 특정 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된 의미가 형성될 때 품사가 변하기도 한다.

‘흑백(黑白)’ 역시 중심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생긴 단어이지만 ‘물 불’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흑백’은 ‘검은색과 흰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색조가 검은색의 짙고 옅음으로 이루어진 것.’, ‘옳고 그름.’, ‘흑인과 백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두 단어가 융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조되는 두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을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 슬픔을 느꼈다. 그 순간 ㉡ 아버지와 ○○수목원 ㉢ 내에 있는 산책로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떠올랐다. ㉣ 가끔은 서로의 생각이 달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 딸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순간이 ㉦ 기쁨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이곳을 여행하는 동안 ㉧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식당 ㉨ 안으로 들어섰다.

- ① a-f, b-e                                 ② a-f, d-g
- ③ c-h, d-g                                 ④ a-f, b-e, d-g
- ⑤ b-e, c-h, d-g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좌우** ㉠  
 1. 왼쪽과 오른쪽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옆이나 곁 또는 주변.  
 3.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  
 4. 좌익과 우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5. 어떤 일에 영향을 주어 지배함.

**상하** ㉡  
 1. 위와 아래를 아울러 이르는 말.  
 2.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귀하고 천함.  
 4. 좋고 나쁨.  
 5. 오르고 내림.

**밤낮**  
 ㉢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 ① ‘좌우 1’은 ‘좌’와 ‘우’가 지닌 의미를 단순히 합한 것이다.
- ② ‘좌우 4, 5’는 원래 의미에서 확장되어 융합된 의미를 형성한 것이다.
- ③ ‘상하 1’을 구성하는 ‘상’과 ‘하’ 중에 어느 한쪽이 중심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상하 3, 4, 5’는 대조되는 두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다.
- ⑤ ‘밤낮’은 의미가 확장되어 융합 의미로 쓰일 때 품사가 변하는 예라 할 수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동작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말한다.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고 있다’, ‘-어 있다’, ‘-어 버렸다’와 같은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거나 ‘-(으)면서’, ‘-고서’와 같은 연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진행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완료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 있다’에 의해 동작상이 실현될 경우, 완료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성을 지니기도 한다.

	진행상	완료상
① 꽃이 <u>피어 있다</u> .		√
② 밥을 다 <u>먹어 버렸다</u> .		√
③ 나는 말을 <u>타고 있다</u> .		√
④ 나는 숙제를 열심히 <u>하고 있다</u> .	√	
⑤ 할머니는 콩나물을 <u>사면서</u> 값을 흥정했다.	√	

14. <보기1>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1>

선생님: 의문문에는 ‘예-아니오’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의문사를 동반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떤 의문문인지에 따라 구현 양상이 달랐는데요. 다음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주어가 1, 3인칭 일 때	용언의 어간 + 의문형 어미 ‘-녀’	용언의 어간 + 의문형 어미 ‘-뇨’
	체언+의문 조사 ‘가’	체언+의문 조사 ‘고’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문 종류와 상관없이 의문형 어미 ‘-니다’ 또는 ‘-리다’와 결합	

<보기2>

- \* 이 었던 ㉠ (이 어떤 사람이냐)
- \* 네 었데 ㉡ (너는 어떻게 아느냐)
- \* 이 썩리 너희 ㉢ (이 딸이 너희 중이냐)

	㉠	㉡	㉢
①	사름고	아느녀	종녀
②	사름가	아느뇨	종고
③	사름고	안다	종가
④	사름뇨	안다	종고
⑤	사름가	아느뇨	종가

## 15. &lt;보기&gt;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뽕+고→[노코], 많+자→[만:치]  
 ㉡ 빌+는→[비:는], 살+느냐→[사:느냐]  
 ㉢ 맨+입→[맨닙], 눈+요기→[눈노기]  
 ㉣ 같+이→[가치], 미닫+이→[미:다지]  
 ㉤ 짓+는→[진:는], 항+로→[항:노]

- ① ㉠, ㉢은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축약되었다.  
 ② ㉡, ㉣은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변했다.  
 ③ ㉡, ㉣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닮아 가는 동화에 속한다.  
 ④ ㉢, ㉤은 음운 변동의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었다.  
 ⑤ ㉢, ㉤은 뒤의 음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이 변동하였다.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자는 공자가 외적 사회 규범으로 제시한 예(禮)를 사상의 중심으로 하고 그 근거를 인간 본성의 미숙함에서 찾아 이를 ㉠ 바로잡는, 현실성이 강화된 이론을 정립했다. 순자의 이론은 그의 심성론과 도덕적 인식론, 도덕적 실천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자의 심성론은 주체인 심(心)과 그 대상이 되는 성(性)으로 ㉡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성이란 좋아함과 싫어함,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정(情)을 통칭하는 것으로, 인간이 나면서부터 저절로 얻게 된 자연 본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자연 본성에 따른 행위는 그 본성의 이기심, 질투, 증오, 욕구로 인해 상호 투쟁과 무절제함을 야기하고, 사회적 질서와 화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을 실종시킨다. 따라서 순자는 이러한 본성을 인간의 의식적인 판단과 노력을 통해 통제해야 하는 ‘다스림의 대상’으로 보고, 이때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행하는 주체를 심이라 하였다.

심은 인식 기능과 실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대상뿐만 아니라 주관적 감정과 욕구까지도 대상화하여 그 속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따라 인간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듯 심은 주체적으로 본성을 제어하는 존재이며 육체와 정신 작용의 최고 주재자인 것이다. 순자는 이러한 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명사회를 건설한 자들을 성인(聖人)이라 하였다. 즉 성인이란 타고난 본성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지라도 심이 극진하게 작용하여 타고난 성정(性情)을 변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행위 양식과 문물, 제도 등을 ㉢ 생각해 내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킨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순자는 심이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를 파악하고 그 도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순자에게 도란 중(中)으로 표현되는, 인간이 따라야 할 ‘올바른 법칙’을 의미한다. 순자는 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심이 인식 기능을 통해 근본 원리인 도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예(禮)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지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이상적인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전자의 방법으로 ㉣ 적학(積學), 적려(積慮), 숙찰(熟察)을, 후자의 방법으로 ㉤ 허일이정(虛壹而靜)을 제시하였다.

적학이란 배움을 지속적으로 쌓아 가는 것이다. 순자에게 학문이란 서경, 시경 등의 경전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예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결국 성인(聖人)이 되는 것으로써 끝을 맺는 일이다. 이러한 적학의 과정을 바탕으로 도를 인식하는 것이 순자가 주장한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적려는 사려(思慮)를 지속적으로 쌓아 가는 것이다. 순자는 학문을 도외시한 사색도 위험하지만 사색을 도외시한 학문도 무익하다고 보고, 사색을 도의 인식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겼다. 마지막으로 숙찰은 숙련되게 관찰하는 것이다. 적학과 적려는 도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작용이지만 도를 직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숙찰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명료성과 직접성을 갖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자는 사물이나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식하는 것을 숙찰이라 하였다. 결국 순자는 예를 배우고 이를 통해 도에 대해 사색하며 도를 숙련되게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허일이정은 마음을 텅 비우고[虛] 한결같이 하며[壹] 고요하게 함[靜]으로써 도를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마음 상태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자는 허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새로 수용하는 것들이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인식의 수용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한 양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을 ‘저쪽의 하나 때문에 이쪽의 하나가 방해받지 않음’, 즉 마음의 분열적 상태를 극복하고 마음을 오직 한곳에만 쓰는 것으로 보았으며, 정을 ‘번거로운 생각 때문에 지각이 어지러워지지 않음’, 즉 부동심에 바탕을 둔 마음 작용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덕적 인식론이 인식 기능을 바탕으로 심이 도를 인식하는 과정이라면, 도덕적 실천론은 그렇게 인식된 도를 심이 실천 기능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순자는 이러한 실현 과정을 치기(治氣)와 성(誠)으로 설명하였다. 치기는 심이 성정의 치우침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순자에게 도덕 실천은 본성에 기초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활동을 중정(中正)\*의 도로써 다스려 나가는 활동이다. 순자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예를 ㉣ 따르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예야말로 중용의 원리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규범으로,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순자가 말한 치기는 중용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를 실천함으로써 성정의 치우침을 바로잡고 마음의 역량을 증대하는 도덕적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성(誠)은 인식한 도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에서 성은 참됨, 진실함, 향상됨을 뜻하는 덕이다. 순자는 이러한 성을 도덕 수양의 기본적인 동력이자 완성된 인격 상태로 보았다. 치기가 예의 실천을 통해 기질의 치우침을 바로잡는 마음의 수양이라면, 성은 진실한 마음으로 인의(仁義)의 도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마음의 수양인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덕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가치들이 몸과 마음으로 체득되어 도덕적 인격이 완성되고, 그러한 작용으로 도덕적인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에게 있어서 예에 근거하지 않은 도덕 실천이란 있을 수 없고, 인의를 배제한 예의 실천 또한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는 치기와 성, 양 측면의 요소들이 동시에 충족되는 방식으로 마음의 수양을 이루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인(聖人)의 경지에 ㉤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 중정(中正):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곧고 올바른, 또는 그런 모양.

16. 윗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자의 심성론에서 성(性)의 의미
- ② 순자가 생각하는 도덕 실천의 방법
- ③ 순자가 생각한 학문의 기본적 방법
- ④ 순자의 사상에서 도와 예(禮)의 관계
- ⑤ 순자가 언급한 허일이정에 영향을 준 사상

17. 윗글의 ‘심(心)’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은 치기(治氣)와 성(誠)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식으로 도를 인식한다.
- ② 심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 타고난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③ 심은 주관적인 감정과 욕구 등을 대상화하여 그 속성을 인식할 수 있다.
- ④ 심은 본성을 제어하는 존재이면서 육체와 정신 작용의 최고 주재자이다.
- ⑤ 심은 혼란을 초래하는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18. 윗글로 미루어 볼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실한 마음으로 ㉠을 실천할 때 도덕적인 인격이 완성될 수 있다.
- ② 심이 ㉡에 입각하여 예를 실천하면 성정의 치우침을 바로잡을 수 있다.
- ③ ㉠은 도덕 수양의 동력이고, ㉡은 인격이 완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 ④ ㉡의 마음 상태가 확보되어야 ㉠이 가능해져 도를 인식할 수 있다.
- ⑤ ㉠을 통해 인식한 도를 ㉡으로 실현하면 마음의 수양을 이룰 수 있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쇠를 솥돌에 갈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널리 배우고 매일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살피면 얇이 밝아지고 행동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나) 타고난 본성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교화할 수는 있다. 노력하여 올바른 도를 인식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아 도덕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본성을 교화하게 된다.

(다) 성인(聖人)인 요임금이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수양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시켜 완전하게 된 다음에야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 ① (가)에서 배우고 생각하고 살피면 얇이 밝아진다는 것은 순자가 말한 도를 인식하는 방식을 의미하는군.
- ② (나)에서 도덕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순자가 말한 도를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군.
- ③ (나)에서 올바른 도를 인식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는다고 한 것에는 본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순자의 관점이 드러나는군.
- ④ (다)에서 요임금이 수양으로 스스로를 완성시켰다는 것은 순자가 말한 성인(聖人)이 되었음을 의미하는군.
- ⑤ (다)에서 요임금이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한 것에는 성인(聖人)의 본성에 대한 순자의 관점이 드러나는군.

20.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주자’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주자에 의하면 ‘심(心)’은 대상을 지각하고 사려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 실천의 대상인 ‘리(理)’에는 ‘예’가 포함되어 있는데, ‘심’은 이러한 ‘예’를 이해하여 알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행위를 하는 데 표준이 되는 것은 ‘성(性)’이며, ‘정(情)’은 생물적 본능, 생리적 욕망, 심리적 정서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질의 치우침은 이러한 ‘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자는 이를 올바르게 바꾸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 ① 순자는 주자와 달리 기질의 치우침을 바로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 ② 순자의 ‘심’은 주자의 ‘심’과 달리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순자의 ‘정’은 주자의 ‘정’과 달리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다.
- ④ 순자의 ‘예’는 주자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다.
- ⑤ 순자의 ‘성(性)’은 주자의 ‘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상호 투쟁과 무절제함을 야기한다.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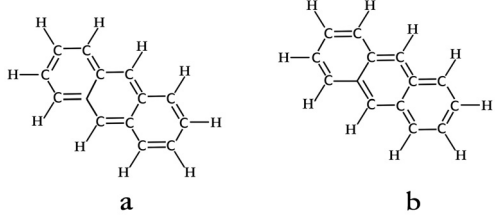
- ① ㉠: 교정(矯正)하는
- ② ㉡: 구성(構成)되어
- ③ ㉢: 창안(創案)하고
- ④ ㉠: 답습(踏襲)하는
- ⑤ ㉢: 도달(到達)하게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을 할 때 가슴에 착용하는 벨트는 자동차 불빛을 받으면 밝게 빛난다. 또한 형광등을 끄면 희미한 빛을 내는 벽지도 있다. 텔레비전은 뒷면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많은 에너지가 화면에 코팅된 분자들과 충돌하여 분자들의 종류에 따라 빨강, 파랑, 녹색의 빛을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전자 기기이다. 이는 모두 분자가 빛을 ㉠ 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빛을 내는 것일까?

분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바닥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데, 이런 상태를 들뜬상태라고 한다. 들뜬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들은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바닥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에너지는 대부분은 열에너지로, 일부는 빛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일 때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다.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분자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자 구조를 적절히 조절하면 여러 가지 빛을 얻을 수 있다.

분자 구조는 주성분에 따라 무기 분자와 유기 분자로 구분할 수 있다. 무기 분자는 대부분 무거운 금속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 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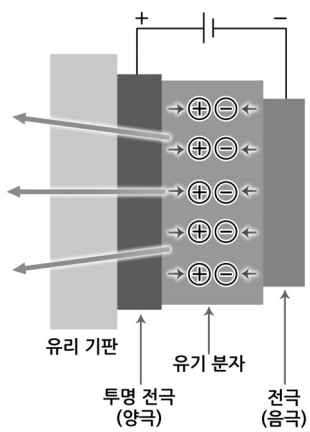


〈그림 1〉

는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자인 탄소와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원자들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은 안트라센이라는 유기 분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안트라센은 벤젠(C<sub>6</sub>H<sub>6</sub>) 분자 세 개가 ① 붙어 있는 형태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단일 결합과 파이 전자\*에 의한 이중 결합이 교대로 나타난다. 안트라센처럼 분자의 구조를 하나의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없고 몇 개의 구조식이 중첩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한다. 안트라센 분자는 a 구조식과 b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와 b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분자 구조는 다르지 않지만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즉 a 구조식에서는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부분이 b 구조식에서는 이중 결합을 ② 이루고 있다. 따라서 a 구조식과 b 구조식이 중첩되는 안트라센의 구조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때 이중 결합을 이루는 파이 전자는 인접한 탄소와 상호 작용을 하여 안트라센 분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게 된다. 이렇게 파이 전자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연결된 반복 단위에 고루 퍼져 있는 현상을 공액(conjugation)이라고 하고,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반복 단위 길이를 공액 길이라고 한다. 파이 전자는 공액 길이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전자가 분자 내의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 분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비편재화\*를 통해 분자 자체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된다.

안트라센과 같은 유기 분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비편재화되어 있는 파이 전자는 들뜬상태가 ③ 되고, 이는 다시 바닥상태로 안정화되면서 빛을 내게 된다. 이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빛의 파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액 길이를 조절하면 여러 가지 빛을 얻을 수 있다. 공액 길이가 길수록 파이 전자는 인접한 탄소와 같은 원자와 더욱 강하게 상호 작용하여 작은 외부 에너지에도 손쉽게 들뜬상태를 이룰 수 있고,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줄어든다. 그 결과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적어지고 큰 파장의 빛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유기 분자에 전압을 걸어 빛을 내는 현상을 ④ 유기 전계 발광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기 분자를 이용해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소자를 만들어야 한다. 유리 기판 위에 빛이 투과될 수 있는 투명 전극을 얇게 코팅한 뒤 유기 분자를 코팅하고, 그 위에 다시 알루미늄 같은 전극을 코팅한다. 그런 다음 투명 전극 쪽에 +극을, 알루미늄 쪽에 -극을 연결한다. 그러면 투명 전극과 유기 분자 경계면에서는 산화 반응이 ⑤ 일어나서 유기 분자 쪽에서는 양전하(정공)가 생성되고, 반대로 음극과 유기 분자 경계면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유기 분자 쪽에서 음전하(전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정



〈그림 2〉

공과 전자는 외부에서 걸어 준 전압에 의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정공과 전자의 이동은 유기 분자의 공액 길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동된 정공과 전자는 유기 분자의 중앙 부분에서 서로 만나 들뜬 상태인 중성의 중간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중간체가 다시 바닥상태로 안정화되면서 빛을 내는 것이다.

- \* 바닥상태: 전자가 핵에서 가장 가까운 상태에 있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 \* 파이 전자: 파이 결합, 즉 분자 내 서로 이웃하고 있는 원자의 각각의 전자 궤도의 중첩에 의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전자로, 각 궤도를 자유롭게 이동함.
- \* 비편재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게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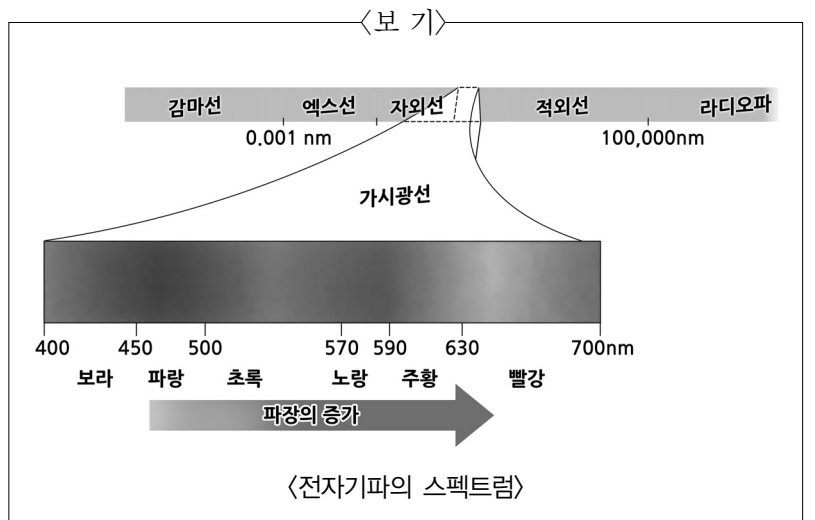
22.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자의 성질을 바탕으로 분자가 빛을 내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② 파이 전자의 성질을 이용하여 빛을 식별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분자가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④ 유기 분자의 발광 원리를 이용한 현상이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공명 구조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안트라센의 분자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3. 밑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공명 구조에 속하는 구조식들의 전체적인 분자 구조는 같다.
- ② 유기 분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영역 안에 있다.
- ③ 안트라센 분자는 하나의 형태로 구조식을 나타낼 수 없는 분자이다.
- ④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자는 전자들의 이동을 통해 안정성을 이루려고 한다.
- ⑤ 유기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비금속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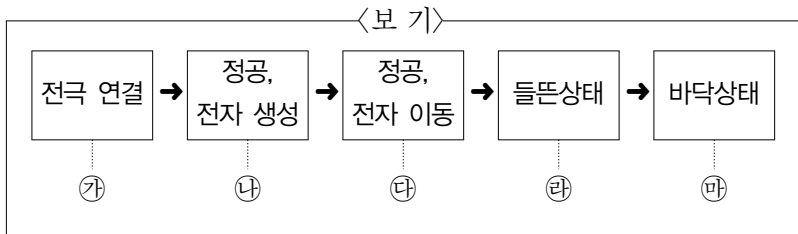
24.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유기 분자는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더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겠군.
- ② 이중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유기 분자는 보라색 계열의 빛을 낼 수 없겠군.
- ③ 유기 분자의 공액 길이를 길게 하면, 좀 더 빨간색에 가까운 빛을 낼 수 있겠군.
- ④ 노란색 계열의 빛은 파란색 계열의 빛에 비해, 유기 분자 내의 전자의 이동 범위가 좁겠군.
- ⑤ 유기 분자에 외부 에너지를 가하는 시간을 줄이면, 줄이기 이전에 나온 빛보다 왼쪽 방향에 있는 빛을 얻을 수 있겠군.



25. ㉠의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전극'은 유기 분자의 상태 변화를 유도한다.
- ② ㉡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 ③ ㉢는 유기 분자의 공액 길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④ ㉣는 정공과 전자가 만나 중간체를 형성한 상태이다.
- ⑤ ㉤에서 ㉤가 되면서 유기 분자는 빛 에너지를 낸다.

26. 문맥상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 그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렸다.
- ② ㉡: 살다 보니 그와 정이 붙어 이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 ③ ㉢: 사물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따져 보았다.
- ④ ㉣: 선생님은 내게 배우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진지하게 권유하셨다.
- ⑤ ㉤: 맛있는 음식을 보자 식욕이 일어났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남북 분단의 상황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인간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인 모순으로 여겨졌다. 이른바 분단 문학은 남북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모순을 밝혀내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버지의 땅」은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를 증오했던 '나'가 발굴한 유해를 매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이해함으로써 갈등과 아픔을 해소하는 과정을 그려 내고 있다. 작가는 가족사와 민족사를 중첩시켜 이데올로기의 적대적 대립 국면에서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불행한 아들과 어머니의 기구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 분단 현실에 따른 징후를 미시적으로 조명하면서 거시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통한 분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호모 세파라투스」는 이념 대립으로 인해 경계 지대에 놓인 '경계인'을 통해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 극복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경계인은 비자발적 요인에 따라 나타나나, 이 작품에서는 고난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경계 지대에 섬으로써 이분법적 대립 논리를 거부하고 두 세계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경계인이 등장한다. 분단 극복에 대한 이들의 의지는 변화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기득권층과 현실적 제약 때문에 침묵하는 지식인층에 의해 좌절된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이러한 인물 유형의 창조를 통해 현실 상황에 대항하여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월북한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를 저주하고 그런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어머니와 갈등한다. 입대한 '나'는 참호를 파던 중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고, 상사의 명령으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서 한 노인을 모셔와 함께 유골을 수습한다.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뚝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계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반합 뚜껑에서 술이 쭈쭈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중략>

어머니는 훌쩍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저고리 셔츠를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선 좀체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앓아누웠을 때라도 입술을 앙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쭈쭈 ㉡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러운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겁게 식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쨍쨍쨍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 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포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름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욱. 까우욱.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 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 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 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 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 **함박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밭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 보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 **사기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빗갈이**였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다)

#### [앞부분의 줄거리]

양쪽으로 나뉘어 대립해 온 도시에 새로 시장이 부임하고, 그는 이쪽 남자와 저쪽 여자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의 결혼을 성사시켜 양쪽의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발행인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세요.

아버지 네, 제 아들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 여자처럼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아직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이 아이들을 도와주어야만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행인 그래서 그들의 결혼을 찬성하시겠다, 그겁니까?

아버지 네.

발행인 (장자한테) 자넨 그 결혼을 언제 할 작정인가?

장자 사흘 후에 할 예정입니다.

발행인 결혼식장은?

장자 시청으로 정했습니다.

발행인 그럼 주례는 시장님이 하시겠군?

장자 네.

발행인 ㉠ **공개적인 행사로 치를 모양이지?**

장자 그렇습니다.

발행인 (지금까지 기록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가만 있자, 이 정도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셈인데...

아버지 ㉡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에 보도해 주시겠습니까?

발행인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뭘니까?

발행인 역시 사람들의 여론이 문제군요. 양쪽의 결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니까 충격을 줄 건 틀림없어요. 더구나 이쪽과 저쪽의 대립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결혼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할 뿐 아니라 불안하게 하며, 심지어는 여론을 분열시킬 우려마저 있습니다.

장자 아주 조그만 기사라도 좋습니다. ㉢ **신문 한 귀퉁이에 저희들이 결혼한다는 사실만 보도해 주십시오.**

발행인 글썄... 그것도 어렵겠는데... 조그맣게나마 보도된다는 건,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

<중략>

학장 (램프를 허공 위로 쳐들고) 저 위를 바라보게. 저 종 탑 꼭대기의 종은, 옛날 이 대학을 설립했던 초대 학장이 매달아 놓은 걸세. 대학에서 울리는 지성의 소리가 온 도시에 퍼지는 걸 바라셨던 거지. 자네 글에는 우리 도시가 양쪽으로 나뉘어진 까닭에 저 종 소리가 꾸짖는 듯이 들린다구 했었네. ‘텅그렁, 사랑하라! 텅그렁, 사랑하라!’ 오늘 저녁에도 자네 귀엔 그렇게 들렸나?

장자 네.

학장 난... 자네의 그 글이 말썽을 일으킬까 봐 거절했었네.

장자 말썽이라뇨?

학장 하필이면 자넨 우리 대학의 종소리로서 사람들의 반응을 시험했거든.

장자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째서 거절의 이유가 됐던 건지.

학장 여보게, 자네도 그 글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눠 놓으면 서로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거든. 더구나 서로를 알지 못하게 오랫동안 차단시켜 놓으면, 나뉘어진 사람들은 더욱 적대적인 편견과 증오를 나타내는데, 바로 그게 호모 세파라투스의 특징이지. ㉣ **호모 세파라투스, 즉 나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신경질적인 증상 때문에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것도 참지 못하고 트집을 잡아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점**이세. 나는 우리 대학이 조금이라도 말썽 날 일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네. 대학은 그런 현실로부터 초연하게, 이상을 간직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 다시 말해서, 대학은 저 종탑에 매달린 종을 간직하고 울리는 것만 해도 힘에 벅차네, 그 소리가 사랑하라 꾸짖는다 해서, 현실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게지.

장자 하지만 교수님, 저는 바로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장 물론 알고 있지, 벌써 자네에 대한 소문이 짝 퍼졌더군.

장자 저를 도와주십시오. 교수님.

학장 물론 난 자넨 도와주고 싶네.

장자 감사합니다.

학장 자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장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학장 다만 그 축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걸세.

장자 개인적이라뇨?

학장 자네와 내가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만 말이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네의 결혼은 모르는 척해 두겠네.

장자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학장 미안하네. 아마 소수의 지성적인 사람들은 나의 입장과 같을 거야. 제발 자네가 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해 주게. ㉤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 귀엔 우리 대학의 종소리가 ‘텅그렁 텅그렁!’ 허공을 울리는 쇠소리**로만 들리거든.

(장남, 낙심하여 퇴장하고 학장 멀리 종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대 어두워진다.)

- 이강백, 「호모 세파라투스」 -

#### 27.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독백적 어투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요청-거절’의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면서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휴지(休止)를 두는 발화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다)는 특정 소재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보여 주어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나’의 가슴 속에 남은 ‘깊숙한 상흔’은 분단 현실이 빚은 우리 민족의 상처와 관련 있겠군.
- ② 아버지가 ‘나’에게는 ‘증오스러운 사내’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끈질긴 기다림’의 대상이 된 상황이 분단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가족사와 민족사의 중첩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항상 누군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는 현재 진행형인 분단 현실의 상황을 환기하는군.
- ④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까마귀의 형상은 분단 현실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을 통해 ‘나’가 아버지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군.

29. (가)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행인이 장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분단 극복에 대한 장자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군.
- ② 학장이 장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를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한 것은 장자가 주장하는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군.
- ③ 아버지가 장자와 저쪽 여자의 결혼을 찬성한 것은 양쪽의 통합 요구를 도외시하는 기득권층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군.
- ④ 시장이 장자와 저쪽 여자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에서 양쪽의 통합에 대한 요구에 밀려 비자발적 경계인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장자가 저쪽 여자와 결혼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서 이분법적 대립 논리를 내면화하지 않고 양쪽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군.

30.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아버지의 귀가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서운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표출된 것이다.
- ③ ㉢는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④ ㉣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심리적 상태가 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⑤ ㉤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31. (가)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변화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② ㉡: ‘고난’을 겪게 될 앞날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 ‘두 세계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직감하고 있다.
- ④ ㉣: 자신을 비난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이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제까지 나리든 봄비는 지루하던 밤과 같이  
새벽바람에 고요히 깃을 걷는다

[A]

산기슭엔 아즈랑이 떠돌고 축축하게 젖은 땅우엔 샘이 돋건만  
발자취 어지러운 옛 뒀안은 어이도 이리 쓸쓸하여……

별 엷은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어  
깨어진 새검파리로 성을 쌓고 노는  
두셋의 어린아이

무너진 성터로 새어가는

한 떨기 바람에  
한숨지고 씻는 늙은이의  
흰 수염은 날린다

이 폐허에도 봄은 또다시 찾아왔건만

불어 가는 바람에  
뜻을 실어 보낼 것인가  
오— 두근거리는 나의 가슴이여!  
솟는 눈물이여!

그러나 나는  
새벽바람에 달음질치는  
동무를 보았나니  
철벽을 깨트리고

새 빛을 실어 오기까지

오— 그 절음이 튼튼하기만 비노라 이 가슴을 바쳐—

— 김해강, 「봄을 맞는 폐허에서」 —

(나)

누군 열두 살에 세상을 다 알아버렸다고 했던가. 이후로 견뎌야만 하는 생의 환멸과 권태가 얼마나 끔직한 줄 아느냐 했던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 사실 세상의 아웃사이더인 나 같은 자에게도 생은 수고와 병고만으로도 그렇게 감탄할 만한 것만은 아닌 성싶다. 더 더욱 오늘날 자본이니 사이버니 하는 것들이 천정부지로 설쳐대는 세상에서, ㉡ 거기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온통 혈안을 하고 날뛰어야만 되는 삶으로, 누가 길섶의 작은 꽃 하나를 보고 감탄하며 누가 동백꽃에만 사는 동박새와 산록 맑은 계곡의 산천어에 눈길을 주겠는가.

<중략>

“헌데 친구야. 이 금낭화를 좀 보아. 이 꽃엔 며느리밥풀꽃에 얽힌 것과 비슷한 사연이 숨어 있다네. 가난 가난 열두 가난 시절, 시집 살이가 험악한 어느 산골마을의 며느리가 밥을 다 푸고선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주걱에 묻은 밥풀 몇 알을 떼먹고 있었다지. 그러다 마침 들에서 돌아오던 시어머니에게 들켜선 저 혼자 밥 다 처먹는다고 작대기로 늘씬 얻어맞아 죽은 뒤, 이듬해부터 그 집 뒤란 장독대에 피었다는 게 이 꽃이야. 여자의 새빨간 입술에 흰 밥알을 문 듯한 모습이 그 며느리의 한을 상징한다는 거야.”

“어머머. 그래? 세상에 이런 슬픈 일도 있다니?”

친구는 어느새 말을 잊고 눈시울이 젖어든다. 그의 눈은 이미 금낭화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연민의 마음. 그렇다. 그 친구는 세상에 대한 감탄뿐만 아니라 언제나 스러지고 상처 입는 이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한 사람이다. ㉠ 모두들 황금에만 눈이 멀고 이기주의로만 뽄뽄 뭉친 요즘 세상에서 참으로 드문 일이다.

연민이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데서 오는 슬픔'이다. 어떤 이는 연민을 '상대의 고통을 동정하는 감상' 정도로 여겨 되레 악덕 취급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는 삼라만상(參羅萬像)의 엄정한 법칙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이다. 필히 죽어 가야만 하는 이런 실존의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슬퍼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 본질에 대한 따뜻한 이해이다. 그래서 연민의 자리는 신의 숨결이 닿는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반찬이 강을 건너왔네  
당신 마음이 그릇이 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왔네  
[B]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 한 상  
마음이 마음을 먹는 저녁

함민복 시인의 「만찬(晩餐)」이란 시이다.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어떤 지인이 마음을 써서 김치를 보내왔다. 그 김치를 따뜻한 햇살로 여긴다. 그 지인이 보낸 연민의 마음을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까닭에 한 저녁 홀로 먹는 초라한 식탁이 황제의 만찬이 되어 있다. 상대에게 연민을 확대하고자 할 때는 한없이 낮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자도 흔쾌하게 열려야 한다.

㉢ 감탄과 연민, 이 둘은 메마르고 닫힌 세상의 꽃이나 초록이나 같은 것이다. 감탄과 연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초라한 일상을 신의 나날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고재중, 「감탄과 연민」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달관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타인의 모습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찾아내고 있다.
- ③ 이상적 공간에서의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활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끝맺어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비교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봄을 맞는 폐허에서」는 김해강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주로 노래했던 초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는 자연에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임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소시민의 나약한 모습과 비관적 정조를 드러내다가, 소극적이거나 현실이 변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① '발자취 어지러운 옛 뒤안'은 폐허의 공간에 봄이 찾아온 것에 대한 감격이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무너진 성터'는 일제 강점기의 착취로 폐허가 된 우리 국토, 빼앗겨 버린 조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군.
- ③ '한숨지고 섰는 늙은이'는 암울한 시대 현실 때문에 근심하고 서러워하는 민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두근거리는 나의 가슴', '솟는 눈물'은 부정적인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는 소시민의 복잡한 심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새 빛을 실어 오기까지', '그 걸음이 튼튼하기만 비노라'는 소극적이거나 비참한 현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군.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삶이 순탄하지 못했다는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 경쟁이 격화되어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세태가 드러나 있다.
- ③ ㉢: 물질이나 자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박한 현실이 드러나 있다.
- ④ ㉣: 절대적 존재에게 복종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⑤ ㉤: 감탄과 연민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만들 것이라는 사고가 드러나 있다.

[36~3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점 시장이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하나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 상품의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한다. 이때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독점 상품이라고 한다.

독점 기업의 공급량은 시장의 공급량과 일치하므로 독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며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독점 상품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 독점 상품과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한다면 수요가 쉽게 옮겨갈 수 있어 시장을 독점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 시장은 해당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진입 장벽이란 타 기업들이 독점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말한다. 이러한 진입 장벽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 규모의 경제, 원료의 독점, 법적인 제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리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산 비용은 점차 늘어나 평균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 이와 달리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자연히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다른 기업들은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므로 독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에 의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 독점이라 한다. 원료의 독점이란 어떤 상품을 만드는 원료를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원료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기업들은 원료를 구입하지 못해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 결과 원료를 독점한 기업만이 상품을 생산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법적인 제한도 진입 장벽을 발생시키는데, 정부로부터 인·허가권, 특허권, 판권 등을 부여받음으로써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자에게 12년간 특허의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이를 이용하여 그 발명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후생 경제\*의 차원에서 독점 시장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극도로 줄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의 생산 수준은 후생 경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적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독점의 존재는 부(富)의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정상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경쟁 체제와 달리 독점 체제에서는 독점 기업에게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독점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된다. 셋째, 경쟁 기업의 등장을 막기 위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데에 지출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높은 진입 장벽을 쌓아 잠재적인 경쟁자가 감히 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엄청난 자금을 써서 이곳저곳에 광고를 하거나 관료들에게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모두 진입 장벽을 견고하게 만드는 시도의 일환이다. 진입 장벽 구축을 위한 이러한 낭비적 지출은 후생 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독점 기업이 존재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관심을 갖지 않아 경제적 진보가 저해된다. 다섯째, 독점 기업은 경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

구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 최대의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독점은 여차피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므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X-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 시장은 사회 후생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정부는 ㉡ 독점으로 인한 사회 후생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 국유화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노력을 한다. 또 한 가지는 독점 기업의 행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 주로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독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 있다.

\* 후생 경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 소득의 증대, 빈부 차의 축소, 생활 안정 따위를 꾀하는 경제.

\* X-비효율성: 기업이 경영 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 비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36.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점 시장에서 독점 상품의 대체재가 존재할 경우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진다.
- ②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릴 경우 평균 생산 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 ③ 진입 장벽은 독점 시장에 새로운 경쟁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 ④ 독점 시장에서는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독점 기업의 공급량은 시장의 공급량과 일치하므로 독점 기업은 독점 재화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다.

37. ㉠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보 기>

미국의 A사는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얻어내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어 알루미늄 생산을 독점하였다. 이 특허권은 1906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A사는 ㉡ 1903년에 더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다시 특허를 얻었고 알루미늄 생산에 대한 독점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사는 ㉢ 보크사이트 생산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알루미늄 생산에 필수 요소인 보크사이트를 다른 업체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12년 미국 법원은 이런 계약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A사의 독점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A사가 ㉣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생산 설비를 확장함으로써 다른 기업이 신규 진입을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알루미늄 가격을 낮추어 책정했기 때문이었다.

	㉡	㉢	㉣
①	규모의 경제	원료의 독점	법적인 제한
②	규모의 경제	법적인 제한	원료의 독점
③	원료의 독점	법적인 제한	규모의 경제
④	법적인 제한	규모의 경제	원료의 독점
⑤	법적인 제한	원료의 독점	규모의 경제

3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사례가 발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20××년부터 3년간 ◇◇ 지역의 군부대에 필수 생필품 10종을 납품하는 사업에 입찰하여 독점 사업권을 따냈다. 이에 고무된 ○○회사의 CEO는 전 직원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3년을 역대 최고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만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 이윤을 따져 본 결과 지난 3년간의 이윤은 오히려 그 전 3년간의 이윤보다 낮게 나타났다.

- ① 독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 광고를 했기 때문에
- ②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량을 극도로 줄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했기 때문에
- ③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 ④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대의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 ⑤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X-비효율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39.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수도, 전기 등의 서비스는 공기업에서 제공한다.
- ② 공정한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독점 기업의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한다.
- ③ 상품에 대한 수요와 독점 기업의 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독점 기업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
- ④ 수요자가 특성이 다른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기업이 집단별로 다른 가격을 매기도록 유도한다.
- ⑤ 하나의 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경우 신규 기업의 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행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절강(浙江) 땅에 사는 위윤·위진·위준 3형제는 각각 반씨·채씨·맹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채씨와 맹씨가 현숙한 반씨를 해치려 하자 시어머니 양씨는 채씨와 맹씨에게 동서 간에 친목하라고 타이른다. 그러나 두 부인이 듣지 않자 친정으로 보내고, 이에 채씨의 부친은 양심을 품고 장자인 위윤과 반씨의 아버지인 반옥을 황제에게 참소하여 귀양 보낸다. 이후 양씨는 채씨를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맹씨 왈,

“존고의 상사가 망극하거늘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급히 채씨를 데려오게 하소서. 무슨 일로 영절(永絶)\*하리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물으니, 맹씨가 숨기지 못하여 부인 임종 시의 유언을 이르니, 제족\*이 맹씨를 책하여 왈,

“연즉 어찌 다시 의논하리오. 가장 해괴하도다.”

반씨 왈,

“가중에 장자가 없으면 차자가 주관할 것이니 나와 의논할 바 아니라. 어찌 채씨 상주에 참여하리오.”

하니 모두 다 위진에게 왈,

“공론이 여차하니 아직 채씨께는 알리지 말라.”

하더라.

차설, 진이 대로 왈,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상중에 시비(是非)를 돋우어 요란하게 하느냐. 형장이 아니 계시오 내가 주장할 것이니, 두 번 이르지 말라.”

하고 노복을 재촉하여 보내니, 홍이 상측(喪側)에 엎드려 통곡하더니 큰 소리로 불러 왈,

“숙부는 주장\*이 되었을 따름이거늘 초상 망극 중에 벌써 왕모의 유언을 저버리시니, 한갓 아내만 중히 여기사 저다지 노하시니, 소

[A] 질(小姪)이 알 바는 아니로되, 금일 문중(門中)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오며 소질의 마음에도 불가하니이다.”

반씨가 꾸짖어 왈,

“너는 조그만 아이라. 어찌 방자히 어른을 시비하리오.”

위진이 대로 왈,

“이는 분명 너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듣고, 내 말이 여차여차하거든 너는 대답을 이리이리하라 한 것이 아니더냐. 너에게 기결한 사람은 극한 요물이라. 너 혼자서 말이라면 어찌 이리하리오. 내 비록 유약하나 네 말대로 시행할까보냐.”

하니, 모든 친척이 칭찬 불이하더라.

홍이 숙부의 불측한 심사를 듣고 대호 왈,

“아까 소질이 사뉘 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 하시니, 말씀이 옳사오면 취신(就身)\*할 것이요, 비록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면 취신할 이유 없으니, 왕모의 상사를 당하였어도 부친이 삼천 리 밖에

[B] 계셔 상변(喪變)을 알지 못하시고 발상(發喪)도 못하오니, 비록 아

니 계시나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禮文)에 당당하옵거늘, 그는 의논치 아니하시니 누구와 더불어 대상(代喪)하시나이까. 금일 문족(門族)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

위진 형제 왈,

“형장이 비록 적거하였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알리지 못하였으나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 예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으니 불가하니라.”

모든 사람이 왈,

“홍이 비록 어리나 소견에 이치가 있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이거늘,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바빠 대상하라.”

위진 형제가 큰 소리로 대로 왈,  
 “어찌 어린 아이의 말로 인하여 상중 대사를 그릇되게 하리오. 우리는 예문대로 하리니 어찌 산 사람을 대상하리오.”  
 하고 일시에 피신하니, 문족이 상의하여 왈,  
 “상인(喪人)이 이제 우리를 피하니 더 있어 무엇하리오.”  
 하고 상복 입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하니, 흥이 망국하여 실성 통곡 왈,  
 “우리 집의 가세는 어찌 남과 다르고, 숙부가 불의를 행하여 문족이 흩어지니,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오.”  
 말을 마치기 전에 채씨가 이르러 부인의 영위(靈位)에 곡하고 반씨를 보며 왈,  
 “나는 시댁에서 득죄하여 본가에 있기로 존고께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 어찌 참괴치 아니하리오. 그대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어찌 존고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지하였느냐. 그 사이 우애가 지극하여 저 나를 기다렸다 죽으려 하였느냐. 지금도 참소와 아첨하는 말을 존고께 고하리이꼬.”  
 하고 옥설이 무수하니, 반씨가 분함을 겨우 참아 다만 대답치 아니하더라.  
 채씨가 흥을 꾸짖어 왈,  
 “너는 어린아이라. 무슨 일을 아는 척하고 우리를 원수로 지목하니, 네 그러면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흥이 유유부답(悠悠不答)할 뿐이더라. 장일(葬日)을 당하니, 부인을 선산에 안장하고 집안을 소쇄(掃灑)할새 집안의 형세가 모두 채·맹 양씨에게 돌아가니, 양인이 주야로 장부를 미혹하게 하여 반씨 모자를 백 가지로 모해하니, 반씨가 흥을 불러 왈,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毒手)를 면치 못할지니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  
 하고, 인하여 대부인 묘하에 여막을 짓고 삼년상을 마친 후에, 다시 거취를 정하고자 하여, 이에 약간의 비복을 거느리고 사묘(祠廟)에 올라 통곡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니,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비참해하지 않을 이 없더라.  
 반씨가 묘하에 이르러 절하고 울며 왈,  
 “일신을 보전하지 못하여 적막 공산에 왔사오니, 존당의 정령께서 얹이 계시거든 소부의 모자를 어여뵈 여기소서.”  
 하고 모자가 슬피 통곡하니, 일월(日月)이 무광(無光)하더라.  
 차시, 흥의 나이가 팔세라. 비록 어린아이이나 조석 곡읍(哭泣)을 지성으로 하니, 양부인의 신령이 어찌 감동하지 아니하리오.  
 일일은 반씨가 수심을 머금고 추월(秋月)을 대하여 탄식 왈,  
 “나는 비록 박명하나 상복을 입고 묘하에 있어 존고의 혼백을 위로 하거니와, 큰아들은 무슨 죄로 적거하여 존고의 존망을 알지 못하고 있는고.”  
 하고 몹시 슬퍼하더니, 양부인이 홀연 천연히 나와 왈,  
 “드물다, 현부여. 나의 생시에도 지극히 공양하였거늘, 사후까지 묘하에 와 고행하고, 내 아까 장사에 가보니 아직 탈은 없는지라. 너희는 염려 말라. 내 오는 길에 이적선(李適仙)께 흥을 부탁하고 왔으니, 글을 가르쳐 입신하여 원수를 갚게 하라. 칠 년이 지나면 양값음해야 할 것이니, 내 말을 잊지 말라.”

- 작자 미상, 「반씨전」 -

- \* 영절(永絶): 소식이나 관계 또는 생명이나 혈통 따위가 영원히 끊어져 아주 없어짐.
- \* 제족: 여러 겨레붙이.
- \* 주장: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사람.
- \* 취신: 어떤 사람이나 사실 따위에 신뢰를 가짐.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의 상태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앞으로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⑤ 빈번한 공간 이동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문중의 공론을, [B]는 예문(禮文)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 ② [A]는 장자의 역할을, [B]는 장손의 역할을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 ③ [A]는 유언의 내용을, [B]는 부친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B]는 부친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 ⑤ [A]는 상대방의 지위 변화를, [B]는 자신의 입장 변화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 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반씨전」은 사대부 가족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보여 준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반씨라는 여성 주인공을 내세워 가정 내 여성들 간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성 동서 간의 대립이 가문 내 가권(家權)의 행사와 관련된 남성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갈등의 기저에는 입신을 절대시하는 공명주의와 가문의 명예 및 질서를 중시하는 가문주의가 강하게 작용한다.

- ① 채씨에게 모해를 받는 반씨의 모습은 가정 내에서 여성 동서 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② 위윤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위진의 태도는 자신이 가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숙부의 불의로 문족이 흩어지자 통곡하는 위흥의 모습은 가문의 명예와 질서를 중시하는 당대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군.
- ④ 위흥의 입신을 요구하는 양부인의 당부는 자신의 노고를 보상받기 위해 자손의 입신을 절대시하는 시대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군.
- ⑤ 양부인의 장례 문제로 대립하는 위진과 위흥의 모습은 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형성된 남성들의 갈등 관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바갯 물** 마시니  
이리혹는 가운데 즐거오미 쏘 인느다  
늪의외 부운(浮雲) 궂튼 부귀이사 브를 주리 이시라 <6수>

(나) 봄의는 고지 피고 녀름에는 녹음(綠陰)이 난다  
금수(錦繡)\* 추산(秋山)에 **불근 들** 더욱 도타  
흐들며 백운(白雲) 창송(蒼松)\*이사 닐어 므슴 흐리오 <8수>

(다) 늘거 희을 일 업서 산중(山中)에 도라오니  
송국원학(松菊猿鶴)기 다 나를 반기느다  
아히야 **술** 그득 브어라 낙이망우(樂而忘憂) 흐리라 <10수>

(라) 도원(桃源)이 있다 흐야도 네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이 만동(滿洞)흐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엇더흐노 무릉인(武陵人)인가 흐노라 <14수>

(마) 어린 제는 즈라고졌더니 즈라니는 늘기 설빠  
늘글 줄 아던들 즈라디나 마를 거슬  
아마도 **몸 절믈 인생(人生)**이 아니 놀고 엇테리 <28수>

(바) 만권서(萬卷書)를 대(對)흐아서 천고(千古) 버들 싱각흐니  
천지간 네던\* 길히 일흉중(一胸中)에 다 오느다  
진실로 네 벗과 네 길을 알면 아니 네고 어제리오. <45수>  
- 김득연, 「산중잡곡」 -

\* 금수: 수를 놓은 비단.  
\* 창송: 푸른 소나무.  
\* 홍하이 만동하니: 붉은 노을이 골짜기에 가득하니.  
\* 네던: 지내던, 가던의 옛말.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대구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라)에서는 자문자답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산중잡곡」은 김득연이 지은 49수의 연시조로 그 내용은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 유학자들의 시조에서 흔히 나타나는 강호한정과 안빈낙도의 면모가 드러나는 작품군, ㉡ 현실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김’을 추구하거나 인간의 유한성을 확인한 후 ‘놀이’에 집착하는 작품군 등이 있다.

- ① (가)의 ‘버구렛 밥’, ‘바갯 물’은 ㉠와 관련된 시구로,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소재이다.
- ② (나)의 ‘불근 들’은 ㉠와 관련된 시구로,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이다.
- ③ (다)의 ‘술’은 ㉡와 관련된 시어로, 현실의 근심에서 벗어나 현실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다.
- ④ (라)의 ‘홍하’는 ㉡와 관련된 시어로, 자연 속에서 번민하는 화자가 놀이에 집착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⑤ (마)의 ‘몸 절믈 인생’은 ㉡와 관련된 시구로,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한 화자가 놀이를 선택하게 된 계기이다.

45. (바)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고인(古人)도 날 몸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몸 뵈  
고인(古人)을 몸 봐도 녀던\* 길 알퐁 잇너  
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이황, 「도산십이곡」 <9곡> -  
\* 녀던: 가던, 다니던의 옛말.

- ① <보기>와 달리 (바)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에 변화를 주고 있군.
- ② (바)의 ‘천고 벗’과 달리 <보기>의 ‘고인(古人)’은 화자가 직접 만날 수 없는 대상이군.
- ③ (바)의 ‘녀던 길’은 화자가 가던 길을, <보기>의 ‘녀던 길’은 ‘고인’이 가던 길을 의미하는군.
- ④ (바)는 화자가 혼잣말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바)와 <보기> 모두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